



## 교회소식 & 이웃소식

# 함께여는교회

제13권 6호  
2021년 2월 7일

- 함께여는교회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함께 가는 공동체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하나누리, 희년함께,  
개척자들, 촛불교회
- 교회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B1층)
- 교회 전화번호  
02) 743-4113
- 교회 홈페이지  
[www.opentogether.org](http://www.opentogether.org)
- 교회 은행계좌  
국민은행 089501-04-184175

### 섬기는 분들

|        |                          |
|--------|--------------------------|
| 교인총회의장 | 홍사성                      |
| 운영위원장  | 표승범                      |
| 예배팀장   | 김정민                      |
| 사회선교팀장 | 노희창                      |
| 교육팀장   | 유정옥                      |
| 생활팀장   | 김현숙                      |
| 가족팀장   | 안용희                      |
| 재정팀장   | 방태홍                      |
| 나누미대표  | 박상현                      |
| 청년회장   | 한의진                      |
| 장로회    | 김대준<br>김동훈<br>송 건<br>정모세 |
| 교육전도사  | 김 덕                      |

1.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함께여는교회입니다.
2. 예배는 방역 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주 일요일 11시 30분 방송으로 송출됩니다. 모두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노력해주시고, 함께여는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3. 주일 학교 예배는 일요일 초등생 자녀(오후 2시), 미취학 자녀(오후 3시)를 위한 ZOOM 예배가 있습니다 (김 덕, 유정옥).
4.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피케팅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회선교팀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희창).
5. 각 나누미(주일학교, 청년회)에서는 수령하신 집단소독을 집행하시고, 사용경과를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태홍).
6. 2월 함께보는 영화는 "염력" (연상호 감독, 류승룡 주연)입니다. 영화를 보시고 느끼신 점을 밴드에 올려 공유해 주세요 (김동훈).
7. 2월 14일은 이웃과 함께 하는 예배로, 총무로서 예배는 없습니다. 이웃과 가족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8. 촛불기도회는 동계 휴지 기간입니다.
9. 함께여는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가족팀에게 말씀하시면 소정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함께여는교회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안용희, 한성모)

## 함께 여는 이야기

『해로운 신앙3\_ 목사 일가 재정 유용 의혹... 해당 목사, 의혹 부인하며 문제 제기 교인들 '저주'』

인천 주님의교회(김용두 목사)는 지평소 '불세례', '성령 춤' 등 은사주의적 신앙을 강조하며 교인들에게 새 예배당 건축 헌금을 거둬 왔다. 김용두 목사는 2010년대 초부터 교인들에게 더 큰 건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에 '5조 원'과 '10만 평'을 주실 것이라면서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라고 했다. 이렇게 착취한 교회의 헌금을 가운데 수십억이 목사일가의 주택 구매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목사는 부부는 2015년 청라신도시에 전원주택을 지어 2018년 입주했는데, 현재 15억 원대로 평가받고 있다. 주님의교회 전도사로 있는 아들 B와 딸 C는 각각 2019년과 2020년 청라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했다. 시세는 각각 7억 5000만 원에 이른다. 김 목사 전체 일가 부동산을 합치면 30억 원 정도다. 그뿐 아니라 김 목사 일가(6명)는 각각 차량을 1대씩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인들이 제기한 헌금 유용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김 목사는 '저주론'을 들고 나와 교인들을 압박했다. 그는 10월 21일 교회 밴드에 "교인 한 분이 앞에서는 웃고 순종했지만, 뒤로는 참으로 나를 많이 괴롭혔다. 안타깝지만 주님은 그분에게 친히 응답하셨다. '너의 가족 중에 하나를 데려가리라' ... 그 사건 이후 그 가족은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며 자신을 대적한 교인의 가족이 죽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최근 김용두 목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뉴스에 오르내렸다. 출석 교인 150여 명 중 40명이 감염돼 물의를 빚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한 지 한 달 만에 김용두 목사 자신도 감염됐다.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김 목사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주님이 나도 걸리게 하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 함께 여는 예배

오전 11시 30분

|           |                             |   |   |   |
|-----------|-----------------------------|---|---|---|
| 침묵의 기도    | .....                       | 다 | 함 | 께 |
| 신앙고백      | .....                       | 다 | 함 | 께 |
| 함께하는 기도   | .....                       | 다 | 함 | 께 |
| 성경봉독      | ..... 엡 3:14~19 .....       | 인 | 도 | 자 |
| 말씀나눔      | .....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자 ..... | 방 | 인 | 성 |
| 환영/알리는 말씀 | .....                       | 김 | 동 | 훈 |
| 송영과 축도    | .....                       | 다 | 함 | 께 |

### 예배위원

|        | 2월 7일 | 2월 14일         | 2월 21일 | 2월 28일 |
|--------|-------|----------------|--------|--------|
| 성경봉독   | -     |                | -      | -      |
| 말씀나눔   | 방인성   | 이웃과<br>함께하는 예배 | 정모세    | 김정민    |
| 점심친교정리 | -     |                | -      | -      |

### 함께여는교회 신앙고백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과 평화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여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며,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긴 계시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함께여는교회 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6:24~26)